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2-27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2-27
2020 년 12 월 27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87373293](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87373293)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12 월 27 일

차례

1. [성탄절은원래슬픈날이라지만]	3
2. [신 (新) 신분제를위한교육에관하여]	4

1. [성탄절은원래슬픈날이지만]

성탄절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은 성서가 전하는 예수탄생 이전의 기록들 때문이다. 마태오복음서 2 장은 예수의 탄생을 알아본 동방박사들이 헤로데왕을 찾아와 이 사실을 알리자, 헤로데왕이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서는 두 살 이하 사나이들을 모조리 죽인 이야기를 전한다. 이렇게 성탄절은 그 첫 시작부터 너무나 슬프고 끔찍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복음서의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관심의 영역이 아니다. 다만 복음서 기자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확실하다. 권력을 가진 이들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권력이지니는 만고불변의 특성일 것이다.

마태오복음서에 반해 루카복음서는 또 다른 예수탄생의 풍경을 전한다. 신의 아들이라는 예수 태어난 곳이 화려한 궁궐이나 안락한 어딘가가 아니라 여관마굿간이요 갓 태어난 예수를 말구유에 눕혔다는 것이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역사적 사실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이 이야기를 통해 복음서 기자가 전하고 싶어했던 이야기를, 우리는 또다시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은 화려하고 으스스대는 치들이 아니라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 눈에 띄지 않게 숨죽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용히, 소리없이, 하지만 분명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서 기자는 분명한 어조로 전한다.

2020 년 이번 성탄절 역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성탄절이 되었다. LG 트윈타워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 통보를 받아 이노조 파괴 공작에 맞서느라 LG 트윈타워 로비에서 한뼘 잠을 자며 이따금 출입을 막아대는 용역들과 힘겨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에 반해 LG 그룹 구광모 회장은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120 억원을 기탁하고 늘 쌓아오던 '좋은 그룹 이미지' 를 도모하였다.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한 하청업체 '지수아이앤씨' 역시 구광모 회장의 고모들인 구원미, 구미정 씨가 각각 50% 씩 지분을 가진 LG 가족 그룹이니, LG 왕국의 영속을 위해 120 억원을 뿌릴 수는 있어도 감히 노동조합을 만들어 왕국에 반기를 드는 짓거리는 용서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겠다.

이렇게 성탄절은 권력에도 전할 것 같은 이들이 늘고 통받는 역사를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슬픔이 그 저 슬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고, 늘 함께 이 슬픔을 이겨낼 것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 일, LG 트윈타워 1 층 로비에 LG 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염원하는 이들의 선물 하나둘 모여들어 선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만들어졌다. 바람이 송풍되어 오는 건물대리석 바닥에 누워 잠을 자야 한대도, 핫팩으로 겨우 이 추위에 맞서야 하고 밥 한 번 먹으려나 갔다 오려면 몇 십분을 용역과 드잡이질해야 하는 이가 장낮은 곳에서 바로 자기와 친지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권력을 무너뜨릴, 세상이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찰수있게하는연대가실존하고있다. 그리하여결국자기만아는그불행에빠진이들까지모두구해내는그구원의역사가몇번이고, 몇십몇천번이고다시쓰이기사작할것이다.

성탄절은원래슬픈날이라지만이슬픔가운데바로역설적이게도구원의희망이있다. LG 트윈타워청소노동자들의투쟁이승리하고, 이를시작으로권력과자기보위에논이던 LG 왕국이무너지는일, 그를통해예수가바랐던모두가행복한세상을노동대중의손으로직접건설하는것. 이야말로성탄절에즈음하여예수정신을온전히계승하는올바른기도제목이될것이다.

”LG 트윈타워청소노동자” 내년에도계속일하고싶어요””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5865.html

”앞에선 120 억성금, 뒤로는노조파괴...’ 표리부동’ LG 그룹의’ 민낯’ :

<http://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5>

2. [신 (新) 신분제를위한교육에관하여]

현교육제도가유산계급의계급대물림을위한것임이갈수록노골적으로드러나고있다. 기사에따르면서소득층중고소득층의학업성취도를따라갈수있는이들은고작 3% 에불과하다. 이는현학벌제도가우파들이주장하듯개인의노력여부에달린것이아닌계급문제와직결된문제임을보여주고있다.

이상으로서의교육은대중이사회를살아가면서필요한교양을배우고각자에게존재하는재능을바탕으로자유롭게자신의능력을개발하며사회를살아가는구성원으로의협력의가치에대해배우는것일것이다. 그리고그과정속에서다른이의이익이나인정을위함이아닌, 자신을위하여모두가평등하고공정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누릴수있어야한다.

하지만학생들은작금의교육과정속에서무엇을배우고어떤취급을받는가? 이상과는반대로학생들은개인의특성과상관없이국가와자본이요구하는가치를주입식으로암기하기를요구받는다. 그리고사회를더불어사는구성원으로서의협력의가치가아닌자유시장이라는야만에던져진경쟁자로서의경쟁의가치관을받아들이기를상대평가제도속에서강요받는다.

하물며이런망가진교육과정속에서국가는개인에게학습을위한제대로된환경조차보장해주지않는다. 국가가주관하여사회에서의지위를보장하는각종시험은부실한공교육환경에서배운이들에게는가혹하며사교육을배울수록, 고비

용의, 보다고비용의사교육을배우는이들에게유리하다. 물론이혜택을누릴수있는것은자본계급으로평등과정은애초부터찾아볼수없다.

이렇게국가와자본에의해저학력으로몰려난이들은공공연히소외된다. 대학졸업여부, 학벌의여부에따른혐오는이미사회에만연해있으며 XX 대학졸업장이라는카스트증명서에따라저학력대중의저임금은정당화당하고지적능력에대해낙인이찍힌다.

심지어사회정의로부터도이들은소외된다. 작금의공정담론에서내세워지는것은소위‘명문대생’들의아픔일뿐이들의목소리는누구에게도대변되지못한다. 반대로공정이라는단어를이용하여명문기득권층의기득권은다시한번정당화된다. 이모두계급의구분을목적으로하는교육제도때문이다.

혹자는현교육체제내에서‘평등한경쟁’을보장해야한다고하나상술하였듯근본부터잘못된체제내에서어떻게평등과공정을찾겠는가? 권위자들이자신의입맛에따라주입을강요하는무의미한가치, 국가가보장하는졸업증이라는이름의계급증명서그리고이들과결탁하여이에대한접근성을판매하는자본, 이들자본, 국가권위는모두한통속이다. 구조적모순덩이인체제속에서는평등은찾을수없다.

결국현교육제도는자본계급이자신의위치를사수하고상속하기위한또하나의도구일뿐이다.

진실로모두가자신의학업적성취, 자신을위해자신의능력을개발하고사회성을기르며협력의가치를기르기위해서는구조적인변혁이필요하다. 이모든부조리를만들어내는자본, 그리고자본과결탁한국가를타파해야한다. 그리고학생들을포함해모든민중이비로소평등하게의사참여할수있는민주적교육제도속에서진실로자본계급이아닌노동계급을위한교육을만들어내야한다.

”저소득가구서성적상위권, 100 명중 3 명...” 자취감춘개천용”” :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76020.html>